

2022년 제 2 회 세계 성균관글백일장

소속교: 강서사범대학교 (졸업)

한글 성명: 윤옥란

생명의 가치는 나에게 있다
 "딩동!"
 "안녕하세요,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
 람인데요, 쿠키를 주려구요."
 한 여자가 상냥하게 웃으면서 쿠키를
 나에게 내밀었다.
 "제가 만든 거라 모양은 예쁘지 않지만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잘 지내요."
 나도 인사를 하고 예쁘게 포장한 쿠
 키를 들고 집에 들어왔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요즘 현대인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어서인지 내가 오히려
 어색하고 기분이 이상했다.
 어릴 적 부모가 타지에서 일하는 바깥
 에 나는 할머니와 함께 자랐다. 할머니
 는 자그마한 마을에 살았는데 할머니와
 당시 마을분들과 관계가 무척 좋았다.
 그들과 자주 만나 수도도 떨고 누구 집
 에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왔다. 그리고
 가끔씩 누구네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2022년

제 2 회

세계

성균 한글백일장

소속교: 강서사범대학교 (졸업)

한글 성명: 윤옥란

모두 모여 잔치를 벌리곤 했다. 그때
그 시절, 금전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해서부터
우리 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고층
건물이 가득하고 쓸새없이 바빠 일하는
현대인들 속에서 숨이 막혔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듯이 나눔
운커녕 누에처럼 자신을 꼼꼼 감췄다.
자신만을 사랑하고 즉위에 사는 사람들
에게는 관심이 없다. 설사 매일 만나는데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은 보고도 못
본체 한다.
"가까운 이웃이 먼 천척보다 낫다"는
속담이 여색해지도록 이웃간의 소통은
전혀 없고 사감들은 하나같이 서로에게
린색하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요즘, 아무런 소통도
나눔도 없는, 이웃간의 정이라고는 더욱
찾아 볼수 없는 요즘, 이런 요즘 세상

2022년 제 2 회 세계 성균 한글백일장

소속교: 강서사범대학교 (졸업) 한글 성명: 윤옥간

에 적음된 나에게 다가온 옆집 여자는
 어색할 수 밖에 없었다. 나는 문득 "나
 녀는 생활을 더 행복하게 합니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먼저 손을 내밀어준 그
 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 나는 엄
 마와 함께 과일을 담아가지고 옆집으로
 갔다.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는 그녀
 에게 우리도 환하게 웃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야 자주 놀러 오겠다는 끝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
 는 집에 돌아온 후 무언가 큰일을 해
 낸듯이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꼈다. 그 후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과도
 먼저 인사를 했고 과묵할 것 같았던 이
 웃들도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았다. 나는
 그제야 서로 정을 나누고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았다.
 생명의 가치는 나눔에 있다. 이 세상

2022년 제 2 회 세계 성균관글백일장

소속교: 강서사범대학교 (졸업)

한글 성명: 윤복란

그 누구도 나 없이 혼자 고립되어 생
활하지 못한다. 사회 발전이 빠르고
없이 바뀔 요즘, 오늘부터라도 즉위 사
람을 관심하고, 정을 나누고, 마음의 문
을 열어보는 것이 어떨까? 더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